# 청년 취업준비자 70만4천명…15만4천명 감소

공무원 지망생 30% 아래로 일반기업 지망생 비중 늘어 첫 직장까지 평균 10.8개월

올해 청년 취업준비자가 15만명 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. 취업준비자 중 공무원 지망생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30% 아래로 떨어졌다.

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 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 년층(15~29세) 취업준비자는 70만4,000명으 로 1년 전보다 15만4,000명 줄었다.

분야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(21만 명)이 6만8,000명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.

전체 취업준비자 가운데 공무원 준비생이 차 지한 비중(29.9%)도 1년 전보다 2.5%포인트 줄면서 30% 아래로 내려갔다.

교원 임용 준비생(2만7,000명)도 함께 감소 했다. 일반 기업체 준비생(16만8,000명) 역시 2만3,000명 줄었지만, 비중(23.8%)은 1년 전 보다 1.6%포인트 높아졌다.

통계청은 최근 청년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 대졸 이상(7.8개월)보다 길었다. 용 호조가 이어지며 취업준비자가 줄었다고 설

다만 청년들 사이에서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 지는 가운데 일반 기업의 취업 문턱이 높아진 것 도 취업준비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

졸업 후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.8개월로 1년 전보다 0.7개월 늘었다. 특 히 고졸 이하의 취업 소요 기간이 1년 4개월로 첫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것이다.

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.8개월로 0.6 개월 늘었다.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11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구하고, 1년 7개월 만에 직장을 그 만뒀다는 의미다.

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 다.

(45.1%)이 가장 많았다. 근로 형태별로 보면 계 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이 첫 일자리의 34.2%를 차지했다.

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150만원~200만원 미만(36.6%)이 가장 많았다. 월급 200만원~ 300만원 미만(28.4%)이 뒤를 이었고, 첫 월급 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.7%에 그쳤다.

취업 유경험자 중 약 10명 중 7명(67.9%)은

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전공과 일자리가 매 우 일치하거나, 그런대로 일치한 경우는 절반 (47.5%) 정도에 그쳤다.

나머지 39.7%는 전공과 일자리가 '매우 불일 치'하고, 12.7%는 '약간 불일치'한다고 답했



2000년대의 향수, Y2K패션

에 대한 향수를 트렌디하게 재해석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.

한다.

적인 아이템, 와이드 데님 팬츠를 선보인다. Y2K패션은 Z세대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 시절 /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

# "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판매 허용 반대'

다"고 주장했다.

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입장문 "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마련해야"

공정거래위원회가 '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 라인 배송 허용'에 대해 검토중인 가운데 중• 소수퍼 업계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.

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(이하연합회) 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"유통 대기업은 대형마 트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짓밟고, 실업과 빈곤의 위기에 빠뜨렸

연합회는 "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 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"이라며 "그런 유통 대기업 이 이제 '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'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은 분노한다"고 역설

또한 "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 위 문제로 중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,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 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"이라고 우려

그러면서 "정부는 대형마트 휴무일 판매 허 용 추진을 중단하고, 중・소상공인의 보호와 육 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" 고 당부했다. /홍승현 기자

## 금융위, 금산분리 등 규제 빗장 푼다

#### 은행도 가상자산 업무허용 기대

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 금융규제 원 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.

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 회의에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.

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 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 수했다.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분야, 9개 주요과제,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.

우선 은행권은 각종 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 서 대형 정보기술(IT) 기업인 빅테크와 경쟁하 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'기울어진 운동 장'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해왔다.

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 (IT)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

라는 게 골자다.

금융위는 이런 업계 건의를 반영, 금산분리 제 도 개선,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 용·비금융 간 서비스·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.

보험업권은 보험그룹 내 1사 1 라이선스 규제 완화,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,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.

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(ATS) 도 입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. 이를 통해 자 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.

가상자산,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 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.

/연합뉴스

## 한은,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

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대학생을 대 상으로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을 개최

이번 대회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통화정책 결 정 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, 한국은행의 역할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정책 결정에 대한 공 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.

대회는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 당에서 진행되며, 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 지역

소재 대학의 '금린이', '이코모니', 'STJP', '소물리에', '금리(金利)빨', '해류뭄해리' 등 총 6개 팀이 참여한다.

우수상 이상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향후 5년 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시 서류전형 우대혜 택이 부여되며, 지역예선대회 최우수상 수상팀 은 내달 12일 개최될 전국결선대회에 진출하게 /오지현 기자

### 복지부,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

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에는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.

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'장애인 · 노 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 개정안'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 상의 '장애인용 쇼핑카트'를 쇼핑카트 보관장

소에 반드시 비치하고,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 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.

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다.

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해야 하는 대 형마트는 이마트, 홈플러스, 하나로마트 등 유 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다. 2021 년 9월 현재 전국에 426개소가 있다. /연합뉴스

#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

[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!! ]

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,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,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 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



🏖 (주)백양실업

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. (061) 392-7900